



가정예배

번성하는 우리가정

2022년 7월 4주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흥'

https://youtu.be/41laOFDJ9_0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해당 찬양의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말씀

제 7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엡5:3)

영화나 드라마에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거나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내용도 가끔 나옵니다. 우정을 넘어선 동성 간의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성을 왜곡하고 악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성의 기능은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려고 합니다. 성에 있어서도 문란할 수밖에 없는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주신 은혜 중에 하나는 성적인 타락을 막는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하고 한 사람과만 사랑을 나눌 것을 말씀으로 정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타리 안에서만 성적인 연합을 누려야 합니다. 부부 외에 어떤 방법과 어떤 사람과도 성적인 관계를 허락해서는 안됩니다.

제7계명은 현대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다양한 성적인 현상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성폭력, 동성애,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혼전동거, 성전환자를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성적인 범죄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성적인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하게 바로 서야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도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가 성적인 타락을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가정과 부부만을 위한 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나눔

오늘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인가요?
또한 이 마음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기도제목과 더불어 가족들과 나누어 봅시다.

가정을 위한 기도

(다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적 타락과 유혹이 만연하고 또 그것을 아름답게 포장하려는 악한 세대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의 파도에 쓸려가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니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부모가 읽는 기도) - 부모님 중 한 분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